

5) 교육의 침체

조선 초기부터 계속 추구해온 흥학책으로 전국의 향교가 시설을 정비하고 학교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은 성종대에 이르러서였다. 교관이 파견되고 양반들이 교생으로 입학하여 처음에는 자못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다.

향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우선 교관의 질적 저하를 들 수 있다. 군현제도가 정비되고 각 고을마다 향교가 하나씩 설치된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교관의 명칭을 교수와 훈도로 정리하였다. 도호부 이상에는 교수를, 군현에는 훈도를 둔다고 하였지만 문신들은 교관직을 한직으로 여기고 외면하였다. 더구나 향교의 재정 열악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고을 수령이 교관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도 교관직 회피의 한 원인이 되었다. 교관들에 대한 빈약한 대우는 향교 교육을 침체케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가르치는 교관이나 배우는 양반교생이나 학식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실정에서 양반들은 향교에서의 공부를 점차 외면하였다.

다음은 향교 교육의 비효율성이다. 양반들이 향교에 나간 것은 공부를 하고 과거에 합격할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과거합격률이 저조하자 양반들은 향교 교육을 회피하였다. 이는 과거를 거쳐 관료들로 진출한 인물들의 학력을 조사해보도 알 수 있다. 향교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교관을 역임하였다고 밝힌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기록의 편파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양반들이 향교의 교육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은 향교와 같은 관학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세운 서재나 정사에서 공부를 하였고, 과거를 앞두고는 주로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양반들의 향교 교육 외면은 심화되었고, 그 대신 평민들이 액외교생으로 입속하여 군역의 모면을 기도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향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의 안이한 교육정책도 지적하여야 한다. 조정에서는 흥학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수령7사 가운데 '학교흥(學校興)'을 넣은 것도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을 진흥시킬 구체적인 시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향교의 교육이 무상인 것에 비해 조정에서 배려한 경제적 뒷받침은 수조권에 불과한 향교전 약간과 향교노비 몇 명 정도였다. 따라서 항상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었다.

향교 교육은 수령의 지속적인 관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순천향교 안에 있는 공적비 14기 가운데 흥학비 2기는 향교에 큰 도움을 주었던 수령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이러한 흥학비는 순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향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령의 잦은 교체 속에서 향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한 대다수 수령들은 향교 교육에 그다

『보부록』

지 큰 관심이 없었다. 다만 의례적으로 향교에 경제적인 협조를 하였을 뿐이다. 순천향교에 소장된 『보부록(寶褒錄)』은 1608년(선조 41)부터 1636년(인조 14)까지 향교에 금전과 물품을 기증한 내력을 기록한 것인데, 역대 순천부사가 주된 기증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 교육과 과거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향교 교육·소과·대과가 단계적으로 연결되었더라면 양반들은 향교 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응시자는 반드시 향교에서 공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었다. 그저 향교에 적을 두어야 과거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정도였다. 따라서 양반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교생으로 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서울의 성균관도 마찬가지였다.

대과의 응시자격이 생원·진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 유학에게도 응시자격이 똑같이 주어졌다. 따라서 생원·진사들은 성균관에서 머무는 것보다 자기 고향에서 공부하고 과거에 대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정의 정책은 학교에서 인재를 길러 관료로 등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공부장소는 어찌되었든 과거를 통해 필요한 관료를 선발하겠다는 안이한 교육정책을 지속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의 성균관·사학·지방의 향교 등 관학의 침체는 필연적이었다.

성종대에 향교제도가 정비되면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이 부진한 원인이 교관에 있다고 판단하여 교관의 자질을 높이는 조치를 모색하였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연산군대에 들어서 향교의 침체는 더욱 두드러졌다. 연산군은 유생들이 경서를 인용하면서 그의 실정을 비난하자 유학을 억압하였다. 경서를 불사르고, 학자들의 독서를 금지하고, 심지어 성균관을 주연의 장소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연산군대에는 관학이 더욱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중종반정을 계기로 분위기가 혁신되면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백성들의 여망과 관료들의 확보, 유학의 진흥을 위해서 학교 교육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반정 직후 성균관과 사학을 수리하고 향교의 부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때 기묘사림들이 진출하면서 향교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듯하였다. 1518년(중종 13)에 구례현감으로 임명받은 안처순이

“주군의 향교는 이미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이 학자로 하여금 학문에 힘을 다하여 효제충신의 도를 알게 하고자 하지만 허다한 주현의 훈도들을 어떻게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학문이 풍부하다면 공가(公暇)에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신은 남을 가르칠 만한 학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당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한 것은 사림들의 향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관학의 필요성만을 표명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기묘사림들은 학교가 오로지 과거 위주로만 운영되고 명리만을 추구하여 선비들의 풍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의 보수나 교관의 파견 등 외형적인 흥학책보다는 사람 스스로의 수련과 자발적인 흥기를 꾀하게 하는 흥학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명분만 앞세운 흥학책으로는 한 번 어그러진 관학의 교육실상을 올바르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나마 기묘사화를 거치면서 향교 교육은 더욱 침체되고 말았다. 1535년에 경상감사가 “자기가 감사로 있었던 5도의 유생들이 모두 향교의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사숙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당시 향교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변화는 향교를 대신하여 서원이 지방교육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서원은 단순히 교육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관학의 부진은 사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등장한 서원이 확산될수록 향교 교육의 쇠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 선조대의 문신인 이제신이 「후청쇄어(鯁鯁瑣語)」에서 “서원의 유생들은 … … 과거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향교는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은 가지 않고 거개가 용렬하고 잡되고 균역을 피하려는 무리가 많았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향교를 천시하고 서원은 존봉하였으며, 무지한 자들 또한 스스로 서원유생을 가장하여 수령을 헐뜯거나 칭찬하므로 수령들 또한 조심하고 무서워하면서 대접하였다.”고 지적한 것은 당시 서원의 위세와 향교의 위축을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당시의 선비들은 서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향교가 양반들에게 외면당한 것은 아니었다. 양반들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회피하였지, 출입도 않고 향교에 대한 관여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없어진 교관 대신에 스스로 교임을 선출하여 향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1801년부터 1900년 사이에 순천향교의 교임을 맡은 사람들을 성씨별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순천지역의 저성으로 알려진 옥천(玉川) 조씨(趙氏), 경주(慶州) 정씨(鄭氏), 제주(濟州) 양씨(梁氏), 목천(木川) 장씨(張氏), 양천(陽川) 허씨(許氏), 광산(光山) 이씨(李氏), 양성(陽城) 이씨(李氏), 상주(尙州) 박씨(朴氏)의 7성 8문 출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조씨·정씨 두 문중에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순천향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향교가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순천부사가 순천향교 유림들의 협력을 얻어 향리들의 부정을 막고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유림들이 향교 중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는 데 협조를 하지 않은 수군절제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일도 있었다. 이처럼 양반들은 향교를 정치·사회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였다. 향교는 바로 양반들의 활동과 이해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향촌기구의 하나였던 것이다.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1990.

전남도청, 『전남의 향교』, 1987.

영남대학교, 『경북향교지』, 1991.

박찬수, 「고려시대의 향교」, 『한국사연구』42, 1983.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교」, 『이상옥회갑기념논문집』, 1970.

이범직,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20, 1976.